

다산포럼

노추(老醜)



이 숙 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의 초상 때에 시체를 덮었던 이불과 시체 밑에 깔았던 자리를 항상 덮고 깔면서 말하기를, “죽거든 반드시 이것으로 나를 엄(嚴)하라”했습니다. 못 자체들이 울면서 평상대로 돌아오기를 권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니다.

경안 마을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조씨 열행은 ‘지금처럼 쇠미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행실’이자 ‘그 열렬한 기상과 깨끗한 성품은 아무나 훗을 바가 아니’였다. 조씨를 기록한 문서는 광주부에 제출되었고, 왕에게 전달되어 정려의 특전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조씨의 열행은 왕에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관부(官府)에서 잘려버렸다. 대작을 맡았던 안정복은 “사론(士論)이 때 지어 일어나 관부에 올랐으나, 관부에 덕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순암은 세도(世道)가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무너진 세상을 탄식하였다.

몇 번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끝에 조씨 부인은 결국 국가가 공인하는 열녀가 되었다. 그런데 8명의 자녀에 손자까지 둔 54세의 조씨 부인이 이 고기스름 나 젊은 사람이 여러 번 구출해 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은 비록 죽지 못했지만 3년 상중(喪中)에 어찌 죽지 못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죽으로 연명하며 빗질은커녕 세수도 않고, 옷에는 이가 득실거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

을 범하다. 신의와 정절의 진정성이란 상호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녀의 남편 정광운은 1730년(영조 6)에 정시(庭試) 장원으로 급제해 사류(士類)의 촉망을 받으며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선비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실록에 의하면, 지평의 벼슬에 있던 정광운은 노는 것이 음란해 마을 여자 중 자색이 있으면 돈으로 탈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세상이 다 그를 비투하게 여기고 동료 벼슬아치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꺼려했다.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던 성(性)이지만 수순 없이 ‘노는 남자’를 거러내는 시스템이 있었던 듯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절제되고 고결한 군자야말로 선비의 이상적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풍류가 지저분한” 조씨의 남편 정공(鄭公)은 결국 양녀(良女)를 겁탈한 죄로 파직되었다. 그는 장원급제를 하고도 동료들에게 수치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그 아내의 열행을 보는 세상의 눈은 어땠을까. 순암은 조씨의 열녀 신정이 거절된 것을 도덕을 모르는 자들이 심사를 맡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광주부의 관리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을 터, ‘음란 남편’에 ‘정절 부인’은 누가 보아도 딱 꼬미디였을 게다.

같은 마을의 20년 지기 안정복은 정공

(鄭公)의 행장에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 시론(時論)의 시기를 받아 출세길이 순조롭지 못했다”고 하였고, “결핍하면 남의 모함을 받았지만 그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고 썼다. 순암의 말처럼, 정공이 관직에 있을 때 남의 모함을 받았을 수는 있다. 같은 재료를 갖고도 보는 각도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명한 것은 한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했다는 사실이다.

2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회도 남성들의 성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유력인사들의 ‘추태’가 만천하의 조풍거리가 된다. 그들은 정계나 재계의 ‘어른’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 노동자를 성적으로 희롱한 것도 모자라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통에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더 높이고 있다. 법적 조치는 차치하고라도, 여론의 못매를 맞으며 소셜네트워드를 타고 가족까지도 조롱당하는 것을 보며 그 어떤 출세보다 성윤리 의식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놓고도 ‘불편해 하는지 몰랐다’거나 ‘손녀 겁아 격려하느라’는 식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늘 그래왔는데 재수가 없어 들린 것일 테니까. ‘성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노년 인사들을 보며, 개결(介潔)한 선비 정신으로 평생을 산 ‘어른 남성’의 존재들이 세상 그리워진다.

교단에서

라도 선생



김진우 우산중학교 교감

나면, 연 초에 사귄던 친구집단들이 조금씩 이합집산을 해서 선생님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든 가운데 새물같은 교육실습 선생님들이 오게 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한 학기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대체로 한 학기의 풍경이 이렇다.

학사 일정은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국가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하게 반복된다. 농부의 일기장처럼 몇 년 잘 써놓으면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마음먹고 몇 년간 학교생활일지를 잘 써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러면 전년에 아쉬웠던 것, 금년에 미리 준비할 것, 스스로 더 연마할 연수는 무엇인지,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반성과 준비가 반복되면 교직의 좋은 습관이 되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실습생이 다녀갔다. 예전에는 교생이 오면 아주 반갑고 들뜬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답답하다. 곧하게 대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반성과 준비가 반복되면 교직의 좋은 습관이 되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목 이수 등 이 3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왔다.

40여년 전 교육학 첫 시간에 백발이 성성한 강도 교수님이 “시계는 ‘라도 시계’가 좋지만, 선생은 ‘라도 선생’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 우리는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몰랐다. ‘라도 시계’는 오메가, 로렉스 등 당시 최고급 시계 중 하나이고, 여기저기 관장은 일지리를 구하다가 안 되면 또는 이 직장 저 직장 다녀보고 씩 마음이 들지 않으면 선생이 ‘라도’해야겠다는거나, 5급 을(지금 9급 공무원)이 ‘라도’ 봐야겠다는 말을 예전에는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빗만 것이었다. 교수님은 바로 이때의 교사를 ‘라도 선생’이라 칭한 것이다. 처음부터 사도를 걷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겠으면 선택한 직업이 교사인 경우가 많아 지금과는 판이했다. 당시에는 존경은 더 받았을지 모르지만 직업 선택의 순위로는 뒤졌었다.

대거나 초중등 교사가 부족하여 70년 대까지 대학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을 수료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고, 준교사시험경쟁

로도 교원을 확보하였다.

또다른 상징적인 자료가 있다. 1977년 서울시는 시 공무원 선발 시험을 6차레나 치렀다고 한다. 조금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을 찾아 이직해 버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보충한 것이다. 그해 8월 합격자 290명 중 대졸자는 7.9%, 고졸이 74% 나머지는 초급대, 중졸, 국졸이었고 9월엔 대졸자가 4.6%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8년 금융위기 때 “IMF 위업난을 공무원 시험으로 넘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2013년 9급 시험에 20만명이 몰려, 75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요세 효자는 고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자식이라며 계속 기록 갱신 중이다.

해보다가 안 되면 ‘라도 선생’, ‘5급을’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수재들이 교대사대로 몰리고, 공시생이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열광하고 있다. 나라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나는 교생과 이별의 복도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다만 훗날 교직과 공무원이 이렇게 줄을 서는 바늘구멍이었고 선택이 되었다는 오늘날의 현실이 희한한 기삿거리가 될 날이 분명 올 것이라 생각했다. 옛날의 서울시처럼.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더 나은 대한민국 향한 약속

기 고



김상철 영광경찰서장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하나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8조8000억(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경찰에서는 보호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집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불법 폭력집회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언론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평화적인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외국 국민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하여 정부와 국민의 중재 역할을 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은 평화적인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단연 언론을 꼽는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국은 야간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독일과 일본은 사전 허가제를 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심야시간 집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미국·스페인·캐나다에는 별도 야간집회 규정은 없지만 야간 집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지만 경각심이 해산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에 응한다. 영국은 국회의사당 앞에 반전 시위대가 천막 수십 개를 설치, 수색을 하면서 수개월째 시위를 하지만 경찰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독일은 집회 시위의 97%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통이나 주민 평온을 저해하면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국민은 경찰의 조치에 순응한다.

일본에서는 사전 신고제로 집회를 관리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합헌이라고 판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G8 정상회담시 자신들이 빼앗긴 땅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반대한

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사전거를 탄 경찰 몇 명만이 대열을 통제하였지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집회 참가자 200~300명당 경찰관 2~3명만이 집회를 관리할 정도로 경찰이 주축에 준수 사항을 알려주면 집회 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속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평화로운 입장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자유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7000억 원 들인 아시아문화전당 비 샌다니

개관 1년도 못 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곳곳에서 비가 줄줄 새는 바람에 이 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내린 장맛비로 문화전당 내 누수가 발생한 곳은 벌써 10여 곳에 달했다. 부설시공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

5개 월 중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등 2개 원의 누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문화원의 경우 지붕이 씌워진 입구 천장에서도 빗물이 새 지난 주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휴관일인 4일 오전에도 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 1층에서는 청소를 맡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천장에서 바로 떨어지거나 벽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을 닦느라 분주했다. 당시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바닥에 놓인 양동이 3개엔 아직도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7000억 원을 들여 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9월 부분 임시 개관을 거쳐 같은 해 11월 25일 정식 개관했

다. 시민들은 “개관한 지 1년도 안 된 국립 시설에서 비가 샌다니 말이 되느냐”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문화전당 측은 파악한 누수 지점은 어린이문화원 입구 2곳과 건축 창의 높이터 3곳, 체합관 2곳, 문화정보원 대나루정원 3곳, 기계실 등 10여 곳이다. 지하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천500t의 빗물을 받아 광주천에 내보내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관 이후 올해 봄부터 누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가 셀 때마다 법석을 떨 게 아니라 시공 잘못인지 관리 부실 탓인지 누수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또 다른 얼굴인데 계속해서 빗물이 샌다면 국제도시로 도약하려는 광주시로서는 대외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은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고독한 노인들 홀로 남겨 두면 안 된다

광주·전남 지역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매우 허술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많다.

지난해까지 광주의 홀몸 노인인 4만 여 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10% 이상 늘고 있는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16만 7610명)의 24%에 해당돼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사고무친(四顧無親)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아무도 지켜보는데 없이 눈을 감거나, 한 참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다.

광주 독거노인 중에는 절반이 넘는 2만 1600여 명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4650명에 그치고,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 구축은 741가구에 불과한 정도다.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친구 만들기’지원 대상자는 180명, 노인 생활 관리사는 고작 176명으로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전남 지역은 전체 노인 39만 1837명 중 31.2%인 12만 2087명이 홀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매우 허술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 가운데 각종 질병이나 가난 등으로 노인 1921명과 중·장년층 780명 등 270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돼 하루빨리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 노인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통장이나 부녀회원, 우편배달원, 경찰 지구대 등도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다지고, 고독사 위험군과 1대 1 재배달원을 맺는 ‘지킴이단’을 활성화한다면 한 사람의 노인이라도 더 위험 속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 의식이다. 비록 내 부모나 친지는 아닐지언정 나와 함께 살아 온 이웃을 못 본 체해서야 되겠는가.

無等鼓

편안한 수면 환경은 누구나 바라는 바다. 그런데 어릴 적 세 들어 살던 단층집은 그런 기대와는 멀었다. 식구들이 모로 누워 잠잠을 자야 할 만큼 비좁은 데다, 천장에서 요란스레 쥐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한밤중에도 서생원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 잠은 저만치 달아나 버리곤 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를 내던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쥐들의 운동회는 계속됐다. 그때 소년은 쥐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 되었다.

얼마 전 고교 친구들 모임에서 어쩌다 ‘천장의 쥐’가 화제에 올랐다. 너도 나도 당시의 경험담을 이어갔는데 비슷한 생활환경에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한 친구는 천장에서 갓 난 생쥐가 뚝 떨어졌는데 그렇게 예뻐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때는 밤잠을 설치게 했던 ‘소음’이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되살리며 웃을 수 있는 소재가 된 셈이다. 아파트에서 20여 년을 살아 보니 어릴 적 고향하던 ‘쥐 소리’가 없어 마냥 좋았다. 대신 의식되는 것은 ‘층간 소음’이다. 다행히 위아래 이웃을 잘 만

난 덕분에 그동안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이른 아침에 인터넷이 올랐다. “무슨 공사중이세요?” 아래층 사람이 물었다. “우리 집이 아니고 더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네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똑 그쳤다. 아마 소음이 나는 집을 찾아 다시 인터넷을 누른 모양이었다.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위층 60대 부부에게 흥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000여 건에서 2015년 1만5600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엔 아래층에서 위층 소음에 ‘보복’할 수 있는 스피커마저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우선은 늦은 시간에 뛰지 않고 깔치질을 삼가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